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한국법사학회 제110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층 517호

◎ 정례학술발표회: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교육의 현황

한상돈(이주대 법전문),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국(기초)법 교육현황과 과제」

최병조(서울대 법전문), 「법학전문대학원의 로마법 수업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종길(동아대 법전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 법제사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 한국법사학회 제111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2015년 1월 23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LS 412)

대주제: 사회 변화와 법사학적 탐색

제1주제: 一人償命에 대한 再考

발표: 심희기(연세대) / 토론: 한상돈(이주대)

제2주제: 후세 타쓰지(布施辰治)의 법사상

발표: 김창록(경북대) / 토론: 서울오(이화여대)

제3주제: 토지매매문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사회상-해남윤씨고문서를 중심으로

발표: 이종길(동아대) / 토론: 이옥부(동아대)

3) 한국법사학회 제112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15년 4월 18일(토) 오후 2시 20분~6시 10분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호 세미나실(1층)

대주제: 민법 제정 이전 이혼법제의 동향

제1주제: 1910년대 조선의 이혼

발표: 요시카와 아야코(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토론: 홍양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제2주제: 식민지 시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변화

발표: 소현숙(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토론: 권재문(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조선후기 이혼법의 실제와 이혼의 실상

발표: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토론: 조지만(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한국 이혼법제의 역사와 전망

좌장: 서울오(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7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6시에는 제7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 이하의 학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2009년에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2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상하였다. 2014년에는 규정에 따라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상하기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리하여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각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이 추천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논문 및 수상자,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수학술상: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법사학연구 제48호, 2013.10)

수상자: 임상혁(숭실대학교 교수)

선정이유: 한국 법사학계에서 고려시대의 법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학자들은 고려왕조에서 공식적으로 법령을 공포했다는 역사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당물을 채용해 형편에 맞게 사용했다는 고려사 형법지의 기록과 여기에 소개된 71개의 조문이 고려왕조의 법제를 살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 그 때문에 고려법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비슷한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에 와서 어떻게 갑자기 많은 성문법이 제정되어 집행될 수 있었으며, 신료와 일반 백성들은 그에 대한 별다른 저항감 없이 이를 수용해 온 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은 고려왕조의 각종 기사를 통해 국왕이 내린 詔勅 制 判 教 등을 왕법으로 이해하여 성문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고려의 법 시스템을 왕명인

勅令이 律令에 우선시된 宋과 동일한 체제로 이해하여 성문법의 공포가 체제상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고려 법제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의 지평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본 상을 수여하는 바이다.

신진학술상: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에서의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고문서연구 42권, 2013.2)

수상자: 문현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선정이유: 위 논문은 조선후기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분석하여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문서 작성 과정 및 주체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호적 업무의 중심지인 한성부를 대상으로 하여 문서의 작성 과정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을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호가 호구단자 2통을 작성해서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가지고 호적대장을 등서하고 나머지 1통은 주호에게 돌려주며, 신청에 따라 관에서 준호구를 발급해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는 한성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호구를 주호측에서 작성한다는 변화를 거쳐, 호구단자와 준호구라는 두 종류의 문서가 1장으로 '단일화' 되는 현상이 생겼다. 호구문서 작성 과정상의 이러한 '소략화'는 호적대장의 성격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호구문서와 호적은 자료의 특성상 동일한 연구 가치를 지니지만, 호적의 작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호구문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국가와 군현 단위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戶政 운용에 대한 연구는 부실한 실정에서 이 연구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신진상 수장작으로 선정하였다.

3. 회원동정

최종고 한국법사학회 전 회장은 2013년 봄부터 서울대 명예교수로 여전히

학문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국인물전기학회장으로 매월 인물전기강좌를 개최하며, 2012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장으로서 서울대 아카데미즘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수목화반에서 수목화를 배우며, 내년 봄 대학원동창회 주최 <학문과 예술: 인문화의 세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근래 <신과 인간 미술에서 만나다: 이연호 평전>(2014), <춘원따라 러시아기행>(시화집, 2015)을 발간하였다.

4. 운영위원회

회장	심희기(연세대)
부회장	한상돈(이주대, 편집위원장), 김창록(경북대)
감사	윤대성(창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서울오(이화여대)
연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정보	조지만(이주대)
편집	문준영(부산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섭외	이종길(동아대)
편집위원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대회(경북대), 임상혁(숭실대), 문준영(부산대), 조지만(이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성중모(서울시립대)

5.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557860(예금주: 한국법사학회 심희기)